

# 高等學校福祉教育에 있어서 福祉人才養成

## - 학생의 입학동기와 진로선택 -

오카 타에코(川崎高等學校 教師 岡多枝子)

### 1. 연구목적

일본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전되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가 질적, 양적으로 요구 되어지고있다. 文部科學省은 학습지도 요령을 개정하여, 2003년부터 고등학교에 새로운 교과 「복지」를 개설하였다. 이것은 사회복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켜, 현대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이념과 의의를 이해시키는 것과 함께, 사회복지를 향상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전국에서 약94,000명의 고등학생이 복지를 배워, 졸업할 때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복지시설에 취업하는 졸업생도 있다

그러나, 복지를 배우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조사도 한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고, 학생이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6살의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어떠한 동기(motivation)를 가지고 있고, 시설실습을 포함한 복지교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의 진로선택을 정해가는 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을 본 연구의 큰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시점 과 방법

2006년9월, 후생노동성은 복지전문인 양성을 위해 차후 방향을 검토하는 사회보장심의회복지부회를 설치하였다.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개정을 앞두고 국가자격의 차후방향이 심의의 중심이다. 사회복지사에 관한 논점으로써는, 계약제도로 바뀐 개호보험제도 와 장애인 자립 지원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요구(needs)가 많아져, 생활보호제도에 있어서 자립지원프로그램이나 노숙자 자립 지원등에 관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재검토

하는 것이 주목적이였다.

개호복지사에 관한 논점으로써는, 개호보험제도 와 장애인 지원비제도, 장애인 자립지원법시행에 있어서 개호의 질적, 양적으로 확보의 필요성에 대응하는 교육내용에 관해서 근본적인 재검토에 관해서였다.

개호복지사 양성 심의과정에, 복지계열 고등학교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대인(對人)전문적으로써 추구되는 인간성, 윤리성양성을 위해서는 인생경험을 가져야만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은 후 국가시험을 받을 수 있는 형식이어야만 한다」는 의견과 「일정 수준의 교육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아동기부터 복지에 관해서 소질을 가지고, 성장한 자는 고등학교에서 복지의 길을 지망하여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복지계열고등학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인재가 확보되는 것은 이용자 와 그 가족의 시점에서 의의 가있는 일이다」 등의 의견이 교환되었다. 심의 과정에서는 文部科學省와 전국복지고등학교교장의 보고에 의해서, 복지계열 고등학교(187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49.7%로, 실무경험자(46.2%)보다 높으며, 그 중에서도 복지계열고등학교의 합격율은 65.1%로 높은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복지계열고등학교를 졸업 후의 진로로써는, 취직, 진학 어느 쪽도 복지분야 지망이 다수(67.3%) 차지하고 있어, 복지분야에 중요한 인재 공급원으로 되어있는 것이 보고되어지고 있다. 또한, 복지계열고등학교를 졸업해 복지분야에 종사한자의 이직율은(2003년4월 취직자의 2006년 9월 시점에서 이직율 13.5%)은, 고등학교 졸업후 취직한, 전체의 이직율(2003년4월 취직자의 2006년3월 시점에서의 이직율 49.8%)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고, 직장에서 높은 정착율이 특징임을 알 수 있다.

그 후 「개호복지사 제도의 재검토 방향」이 제시되어, 자격취득 방법의 재검토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이 제시되었다. 개호복지사의 국가 자격을 「폭 넓은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호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격」이라고 정의하며 「자격을 취득한 후 개호를 필요로 하는 환경의 변화와 개호기술의 진보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평생자기연구, 지식, 기능을 습득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각 과정(양성시설, 실무경험, 복지계열고등학교)의 교육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과 함께 「모든 자가 일정한 교육 과정과실무경험을 거친 후에 국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형태의 일원화를 실시, 자격전체의 수준향상」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근년, 청소년의 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되어있다. 이직자는 그 이유로 「생각했던 것과 일 내용이 틀리다」를 첫번째 이유로 들고 있다. 이것은 취업 전에 자기적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복지계열고등학교 학생의 이직율이 낮은 것을, 전문교육을 통해서 자기 직업적성을 인식하여, 적절한 진로 선택을 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복지시설 실습과 재가

개호 현장에서의 실습은, 학생이 복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내용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복지계열고등학교 학생이 진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적성을 어떠한 식으로 인식하는 것인가 또는 입학 할 때 의 지망 동기 와 현장실습과 진로 선택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 가를 명확히 밝히려 한다.

특히, 복지 계열의 낮은 이직율은, 복지 시설 실습을 중심으로 한 복지 전문 교육을 거쳐 복지이념을 성립하여, 복지관계 현장에서 일하는 의의 와 어려움을 인식한 위에 선택한 결과라는 가설을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하의 조사를 실시했다.

## 1) 가설

복지계열 학교의 학생은 「자격증습득」이나 「복지관계에 종사하기 위해」 등 적극적인 목적의식을 가진 자가 많으나 「그냥」이나 「일반 학교에 진학하고 싶지 않아서」 등의 소극적 이유를 가진 자 도 있다. 이렇듯 입학 동기가 입학 후 의 학습의욕과 태도, 진로 선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2학년 첫 실습에서는 「불안」과 「현장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지만, 3학년 실습 마지막은 불안이 적어지고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입학 당시는 복지 계열에 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많지만, 수업과 실습을 통해서 복지 관계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다른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도 증가한다.

## 2) 조사대상

전국복지고등학교장회가맹교233교  
고등학교 3학년 5000명

## 3) 조사날짜 : 2007년 2월

## 4) 조사방법

전국복지고등학교장회에 가맹되어있는 233교에 질문지를 우편으로 송부, 반송해 받는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또, 본 조사의 실시, 데이터분석에 있어서 대상자의 인권 과 개인정보유출에는 충분한 배려를 하였다. 질문지는 무기명식 자유 답안으로 하고, 본 조사의 목적을 함께 조사지에 기재하였다. 결과는 통계로 처리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함으로써,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5) 조사내용

복지계열고등학교, 지망동기와 실습체험, 진로 선택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입하는 식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항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론연구와 함께 복지계열고등학교학생 과 졸업생에게 인터뷰와 복지계열고등학교교사와 교육행정 에 관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복지계열 고등학교를 이해하고 있는 자를 통한 브렌스토밍(brainstorming)을 실시하였다.

또한, 질문 항목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용하여, 2006년 2월과2007년 1월 에 각각 35명의 고3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한 후 수정을 통하여 ①입학동기 ②복지교육의 평가 ③실습체험 ④진로 선택 ⑤성격 등으로 이루어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표1참조)

<표1. 질문지의 질문항목>

1. 지망 동기 「복지과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복수회답) ① 복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② 복지 관계에 종사하기 위해 ③ 복지를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④ 주위에서 권해서 ⑤ 일반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⑥ 그냥 ⑦ 그 외(이유)
2. 복지계열 고등학교 의 평가 「복지계열고등학교에서의 3년간은 어떠했습니까」 (택일 회답) (1, 매우 그렇게 생각함 2, 그렇게 생각함 3,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4, 전혀 그렇게 생각 안함) ① 진로 선택에 도움되지 않았다 ② 충실감이 없었다 ③ 자격증을 받아서 좋았다 ④ 입학한 것을 후회한다 ⑤ 복지공부가 되었다 ⑥ 장래에 도움이 된다 ⑦ 전체적으로 유익했나
3. 시설실습에 관해서 답해주세요(택일회답) 1. 매우 그렇게 생각함 2, 그렇게 생각함 3,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4,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2학년 마지막 실습 ) ①불안했다 ② 감동적인 경험 이었다 ③ 지식부족을 느꼈다 ④ 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느꼈다 ⑤ 직원에게서 배울 점이 있었다 ⑥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느꼈다 ⑦ 반성할 점이 많았다 ⑧ 복지관계 취직은 무리라고 느꼈다 ⑨ 이용자에게서 배울점이 있었다 ⑩ 기술의 미흡함을 느꼈다 ⑪ 복지 이 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⑫ 장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3학년 마지막 실습) ① 불안했다 ② 감동적인 경험 이었다 ③ 지식부족을 느꼈다 ④ 복지현장의 어려움을 느꼈다⑤직원에게서 배울 점이 있었다 ⑥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느꼈다 ⑦ 반성할 점이 많았다 ⑧ 복지관계 취직은 무리라고 느꼈다 ⑨ 이용자에게서 배울점이 있었다 ⑩ 기술의 미흡함을 느꼈다 ⑪ 복지 이 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⑫ 장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다.
4. 진로선택 「진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택일 회답)*복지관계 진학에는 간호, 의료, 보육 등을 포함함 (1 복지관계취직 2 복지관계진학 3 일반 취직 4 일반진학 5 그 외, 미정, 가사일 등) ① 1학년 입학 당시 ② 2학년 첫 실습 전 ③ 2학년 첫 실습 후 ④ 3학년 마지막 실습 전 ⑤ 3학년 실습 후 ⑥ 졸업 할 무렵
5. 진로 선택 만족도 「당신이 정한 진로에 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택일회답)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어느쪽도 아님 ④ 별로 만족 못함 ⑤ 전혀 만족 못함
6. 직업 선택에서 중요시 여기는 요소들(생략)
7. 성격(생략)
8. 실습과 진로선택과의 관계

## 6) 분석방법

복지계열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지망동기 와 현장 실습에서의 체험, 진로선택의 경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각 항목에 관해서 도수분포도를 작성하여, 개요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망동기에 관해서 탐색적인 인자분석을 통해 복지계열고등학교 학생의 입학지원 동기인자를 유출하였다. 집계분석으로는 spss ver.15.0를 이용하였다.

## 3.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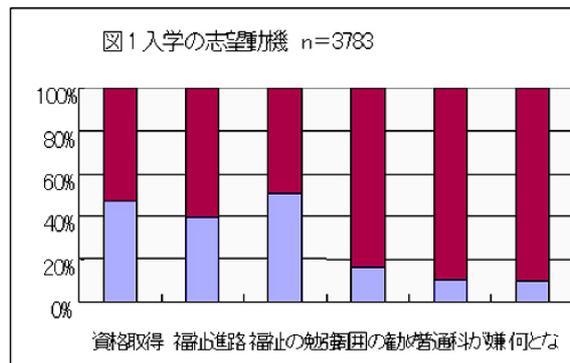
### 1) 회수율

의뢰한 233학교 중, 3곳은 개설하여 3년 미만으로 3학년에 재학생이 없는 것과 자격취득시스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사에 협력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이외에 230학교에서 2007년 3월25일 현재, 145곳의 4015명에게서 반응이 있었다. 학교단위 회수율은 63%이다. 이번 조사에서 집계가 끝난 3783명의 데이터 분석 결과보고는 이하와 같다.

### 2) 조사결과

#### (1) 입학동기

<도표1. 입학지원동기n=3783>



<자격취득 / 복지진로 / 복지공부 / 주위의 권유 / 일반학교가 싫어서 / 그냥>

복지학과에 입학한 동기로서 가장 많은 것은, 「복지공부를 하고 싶어서」이며, 「복지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복지 쪽으로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가 그 다음 동기였다.

한편, 「주위의 권유」나 「일반학교가 싫어서」, 「그냥」이라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20%

이하로, 낮은 결과였다(도표1)

이러한 지원동기6항목의 회답의 인자 분석을 하여, 2개의 인자를 유출하였다. (표2)

<표2. 회전후의 인자행렬(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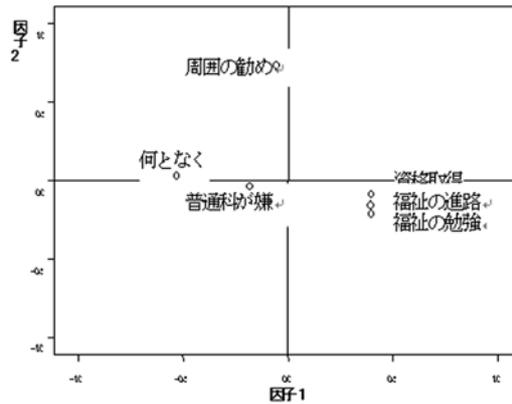
	因子	
	1	2
福祉の資格取得	.347	-.101
福祉進路に進む	.352	-.178
福祉の勉強	.368	-.211
周囲に勤め	-.084	.692
普通科が嫌	-.039	.113
何となく	-.655	-.019

인자유출법;주인자법

회전법;Kaiser 의 정규화를 도모한 법

a 3회의반복으로 회전이 수속(收束) 되었습니다

<도표2. 회전후의인자공간 의 인자플롯(plot)>



相關係數

		資格	進路	勉強	周囲	普通	何となく
資格	Pearson の相關係數	1	.184**	.146**	-.080**	.013	-.204**
	有意確率(両側)		.000	.000	.000	.470	.000
	N	2875	2875	2875	2875	2875	2875
進路	Pearson の相關係數	.184**	1	.126**	-.154**	-.065**	-.220**
	有意確率(両側)	.000		.000	.000	.000	.000
	N	2875	2875	2875	2875	2875	2875
勉強	Pearson の相關係數	.146**	.126**	1	-.186**	.000	-.260**
	有意確率(両側)	.000	.000		.000	.884	.000
	N	2875	2875	2875	2875	2875	2875
周囲	Pearson の相關係數	-.080**	-.154**	-.186**	1	.080**	.035
	有意確率(両側)	.000	.000	.000		.000	.062
	N	2875	2875	2875	2875	2875	2875
普通	Pearson の相關係數	.013	-.065**	.000	.080**	1	.046**
	有意確率(両側)	.470	.000	.884	.000		.013
	N	2875	2875	2875	2875	2875	2875
何となく	Pearson の相關係數	-.204**	-.220**	-.260**	.035	.046**	1
	有意確率(両側)	.000	.000	.000	.062	.013	
	N	2875	2875	2875	2875	2875	2875

\*\* 相關係數は 1% 水準で有意(両側)で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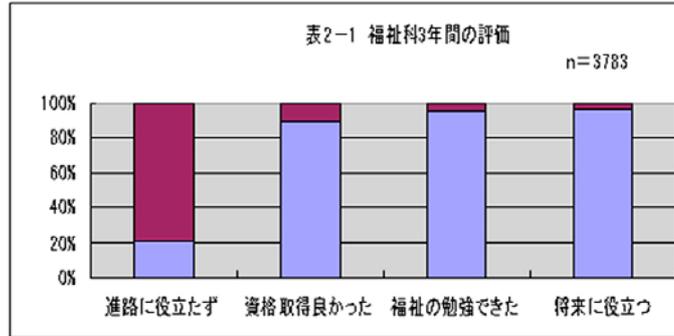
\* 相關係數は 5% 水準で有意(両側)です。

인자 1은, 타율적, 비주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인자2는 자립적, 주체적인 「목적 지향형」 타입이다.

### (2) 복지교육의 평가

<표2-1. 복지과(科) 3년간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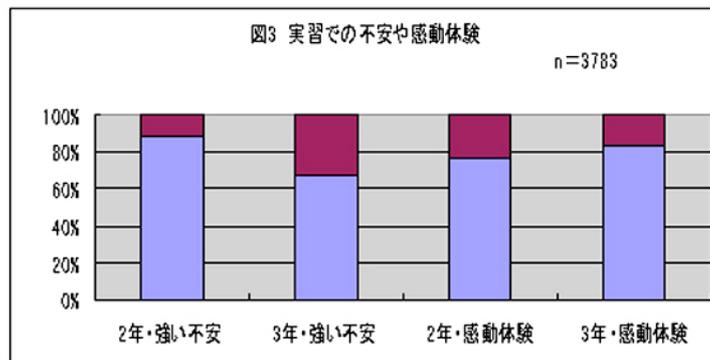


<진로에도움이안됨 / 자격증취득이 좋았다 / 복지를 공부할 수 있었다 / 장래에도움이되었다>

학생 스스로가 3년간 복지계열 고등학교에서 학습, 생활을 함으로써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전체의 20%에서 그쳤다. 한편,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복지를 공부 할 수 있었다」 등 입학 지원동기로서 비율이 높았던 항목은, 달성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동기로서 자격이나 복지 공부를 의식하지 않았던 학생도 졸업 할 무렵에는 이러한 성과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회답이 많은 것 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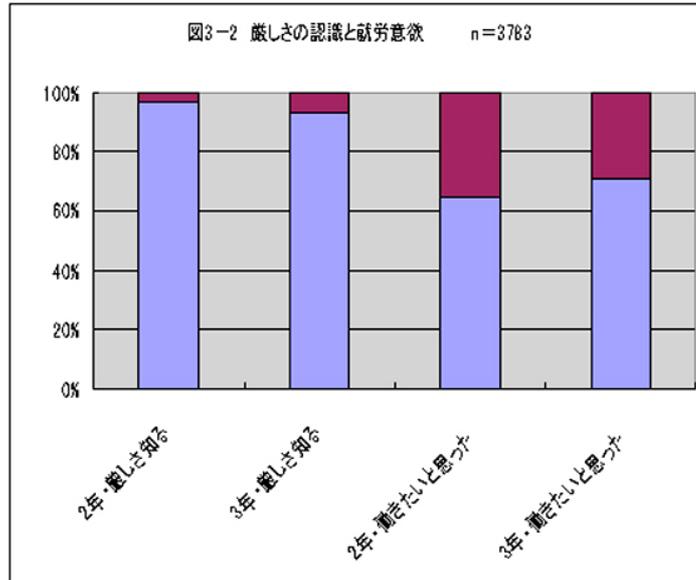
### (3) 실습체험

<도표3. 실습에서 불안과 감동체험>



<2학년;강한불안 / 3학년;강한불안 / 2학년;감동체험 / 3학년;감동체험>

<도표3-2. 어려움의 인식과 취업 의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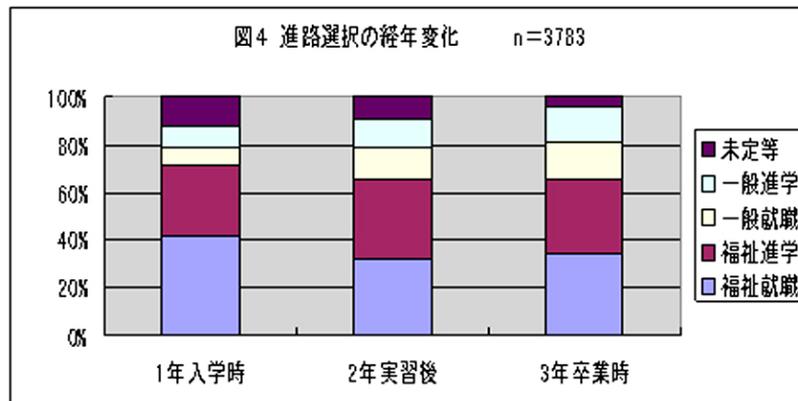


<2학년;강한불안/3학년;강한불안/2학년;감동체험/3학년;감동체험>

실습은 복지교육의 뿌리를 만드는 중요한 체험학습의 제공처이자, 직업과 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등학생에 관한 현장 실습과 진로 선택에 관한 전국 규모의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로, 2학년의 첫 실습과 3학년의 마지막 실습에서는 받아들이는 자세에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한 불안」을 느끼는 비율은 2학년이 많고, 「감동적 경험」은 3학년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복지현장의 어려움」에 관한 인식은 2, 3학년 모두 90%이상으로 높은 비율이지만,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느꼈다」는 3학년이 많았다.

(4) 진로선택

<도표4. 진로선택의 변화 >



입학 당시는 「복지관계취직」 희망자가 40%를 넘었지만, 2학년 첫 실습 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 할 때는 복지관계취직이 2학년 때보다 증가한다. 또한, 입학 할 당시에는 미정자도 10% 정도 있었지만, 졸업 할 무렵에는 반 이상 감소한다.

## 2) 분석

분석결과, 이하의 부분이 확실해졌다.

복지계열고등학교학생은, 입학 동기로서 「복지 자격증취득을 위해서」 「진로」 「복지 공부」 등의 적극적 이유가 많았다. 「주위의 권유」 「그냥」 등 소극적 이유를 드는 학생은 적었다.

3년간의 복지 교육을 돌이켜보면,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입학 한 것을 후회하였다」 「충실함이 없었다」 등의 부정적 회답은, 「장래 인생에 도움이 된다」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복지를 공부 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유익했다」 등 긍정적인 대답에 비해 적다.

2학년의 첫 시설실습에, 「불안」 「지식부족」 「기술 부족」 「복지현장의 어려움」 「반성 할 점이 많다」 등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직원이나 이용자로 부터 배울 점이 많았다」 「장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자기 성장과 진로선택에 유익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3학년 마지막 실습 후에 같은 질문을 설정하여, 양쪽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불안과 반성은 완화되고, 복지이념의 인식 과 직원으로부터의 배움이 증가되고 있었다.

입학 당시에는 복지관계취직과 복지관계진학을 희망했던 학생과, 미정, 가사 일이었던 학생모두 졸업 할 무렵에는 감소하고 있다. 반대로 일반취직 과 진학이 증가하였다.

## 4. 고찰과 결론

복지계열고등학교의 많은 학생은,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입학하여, 시설실습 등을 통해서 복지현장의 어려움에 직면해가면서 자기의 직업적성을 파악하려 한다. 입학 당시 품었던 복지분야에 진로희망을 실현시키는 학생과, 변경하는 학생이 있지만, 어느 쪽도 진로 선택의 만족도는 높다. 고등학교 복지교육의 인재양성에 있어서는, 직업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